지역 소식통

김제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공모 선정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국산밀 자급률 향상 및 품질고급화 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식생활 서구화로 쌀 소비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제2의 주곡으로 밀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우리 밀 자급률(현재 0.7%)을 2030년까지 10%로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

김제시 밀 재배면적은 2021년 950ha이고 4,330M/T 생산했으며, 2022년은 3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산밀은 원맥판매로 소득은 낮고 판매처가 불분명하여 재배농가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따라 국산밀의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수요에 맞는 밀가루를 제분 및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김제시에서는 이번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며 전국 2개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생태동화작가 '그린울타리' 진행

완주군(군수 박성일)에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생태 보존 가족 협업 프로그램이 열렸다.

23일 완주군 중앙도서관은 최근 도서관 옆 연못에서 권오준 생태동화 작가와 함께 11가족이 참여한 '우리가 GREEN 울타리' 행사를 진행했다.

완주군의 공공 및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300여명이 참여해 나무조각에 '좋아하는 동물 얼굴'과 '오리알'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그 나무 조각으로 연못을 보호하는 생태 울타리를 만들어 설치하는 것으로 완성됐다.

/완주=이중복기자

2021~2022 완주방문의 해 성공 위해

다시 한번 '의기투합'

관광자문단 간담회서 올 한해 성과 분석 · 내년 추진 전략 아이디어 제시

2021~2022년 완주방문의 해 추진 중인 완주군(군수 박성일)의 관광 어벤져스 자문단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완주군은 23일 전략회의실에서 완주방문의해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방문의 해 1년차인 올 한해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성과분석 등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이어 2년차인 내년도 중점 추진전략과 세부 실행과제 등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완주가 어디야?'라는 키워드로 완주브랜딩 강화 홍보에 집중하여 얻은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시대에 맞는 특색있는 테마여행상품,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및 미식관광 콘텐츠 발굴 등 실질적으로 관광객 모객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지난 2019년에 구성해 운영 중인 이 자문단은 그간 총5회차에 걸쳐 완주관광정책 및 대표축제 방향성에 대하여 공개 정책포럼 및 토론회 등을 주관하여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숨겨진 관광지, 힐링 여행지로 급부상하게 되기까지의 전략적인 관광홍보정책에는 이 자문단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완주군은 23일 전략회의실에서 완주방문의해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감성여행도시 완주'라는 대표 관광 콘셉트 도출과 자문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중앙 대중매체 및 관광박람회를 통한 관광홍보에도 큰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사실 관광정책에 불모지인 완주에 자양분 역할을 해주신 분들덕분에 금년 한해 열심히 한 결과, 많은 성과들이 있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차별화된 관광정책으로 완주의 숨겨진 매력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관광도시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 관광업계에서도 내로라하는 일명 '어벤져스군단'인 완주관광자문단은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박강섭(㈜코트파 대표),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서병기(헤럴드경제 선임기자), 전진국(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특임교수, 전 KBS 부사장), 박정록(서울시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한경아(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장병권(호원대학교 부총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주=이중복기자

따뜻한 겨울나기

김제 공무원노조 · 농협 김제시지부 연탄 기탁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지석)과 NH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김태곤)에서 기탁한 기부금을 모아 24세대 저소득 가정에 5,000장의 연탄이 전달되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23일에 김제시장,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농협 김제시지부장 등 30여명은 교월동 한 저소득가정을 찾아 사랑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온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지석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건강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곤 농협 김제시지부장은 "전달된 연탄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23일, 박준배 김제시장,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농협 김제시지부장 등 30여명은 교월동 한 저소득가정을 찾아 사랑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상황에서 따뜻한 나눔활동에 앞장서준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과 농협 김제시지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탄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추워져가는 날씨에 연탄을 전해주시고 보살펴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상대여 육아용품 품목 추가 '호응'

김제시보건소 추진

김제시보건소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사업의 이용자 증가 및 출산가정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영아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사업은 영아기 특성상 단기간 양육에 필요하지만 구입 비용의 부담이 큰 육아용품들로 구성, 월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한 용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기존 접이식 침대, 바운서 및 하이체어, 쏘서, 젖병소독기 포함 8종으로 운영되었으나, 요즘 매스컴의 육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육아용품에 대한 대여 문의를 반영해 점퍼루 3종세트 등 신규품목을 추가 구매하여 운영한다.

또한 김제시보건소는 무상대여 용품만을 위한 전용 소독기를 구비하고 전담 사업인력을 확보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육아용품 대여에 노력하고 있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영아에게 대여하며, 영아 보호자가 보건소로 직접 방문, 수령해야하며 대여 기간은 영아1인 1품목 3개월씩 3품목을 총 9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은 인구정책의 출산축 강화 및 출산장려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위기를 위드(with)로'

완주, 25~26일 '소통하는 직원문화 육성 워크숍'

불멍토크와 팀빌딩, 일촌맺기, 리버스 멘토링,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 등. 우리 사회의 불통과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완주군이 선후배 직원들 간 다양하고 긴밀한 소통 문화를 강화해 조직의 '위기를 위드(with)로' 전환해 가고 있어 주변의 관심을 끈다.

완주군(군수 박성일) 경제산업국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신규 직원들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소통하는 활기찬 직원문화 육성 워크숍'을 경천애인권역활성화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선후배 간 진실한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전 자화상 그리기와 곶감 치즈말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절반에 육박하는 신규 직원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위한 '팀빌딩 액티비티'와 불을 보면서 멍때리는 '불멍토크' 등 신세대에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과감히 도입해 소통의 깊이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6개 과를 둔 경제산업국은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먹거리 정책, 환경 문제, 농업축산, 산림녹지 등 군정의 현안이 산적한 대국(大局)으로, '후배 사랑 멘토멘티 일촌 맺기' 등 수시로 직원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해 조직의 '위기를 위드(with)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처럼 완주군이 가능한 모든 소통 방식을 채택하고 선·후배 공직자 간 대화와 공감 형성에 나선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함께 신규 공직자 비중이 높아져 활기 찬 공직문화 조성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것과 무관치 않다.

완주군의 '3년 이하 신규 공무원'은 총 23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무려 27%를 기록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이들의 빠른 적응과 역량 강화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소통 기회 확대와 함께 직급별 맞춤형 역량 강화 차원에서 4단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규 직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톡톡 튀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하고 있다.

4단계 교육은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내기 공무원 굿 스타트' 과정과 ▲임용 3년 이내의 신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공직자 에이스(ACE) 아카데미' ▲6급과 7급을 위한 '중견실무자 MBA 아카데미' ▲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 등으로, 올해만 총 18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입사 4개월 차의 모나리 주무관(산림녹지과)은 "다양한 소통 채널과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경험이 없어 막막한 새내기 직장인의 불안한 심정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녹지직렬의 특수성에도 수소경제와 소셜굿즈 등 완주만의 특별한 정책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은 "20, 30대의 MZ세대 공직자는 코로나19의 위기과 혼란을 경험한 세대로 향후 디지털 문명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주역"이라며 "앞으로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해 이들의 빠른 적응을 통해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